

AIDS NEWS

이스라엘 헤르페스 특효크림 개발

현재 쓰이고 있는 헤르페스 치료제보다 훨씬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없는 새로운 크림이 개발됐다.

이스라엘 벤 구리온대학 응용생물과학연구소의 쇼사나 아라드 박사는 미해조(微海藻)를 이용, 헤르페스치료 크림을 개발했으며 예비실험 결과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라드 박사는 현재 헤르페스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합성약물인 아시클로비르는 헤르페스바이러스의 DNA 증식을 차단하는 것으로 부작용이 있고 내성도 문제가 되고있는 반면 이 새로운 크림은 자연약제기 때문에 훨씬 효과가 크고 독성이 덜하며 바이러스에 내성을 일으킬 위험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아라드 박사는 이 크림을 만드는데 사용된, 미해조는 담수, 해변, 마른 모래, 염수(鹽水)등에서 자란다고 밝히고 특히 이스라엘의 네게브사막은 일조량이 많고 기온이 높으며 거대한 담수지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조를 기르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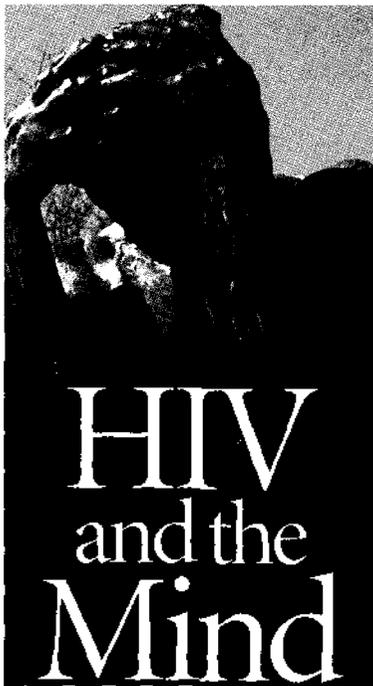
아라드 박사는 현재 프랑스의 한 유명한 화장품회사와 이 크림을 상품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텔아비브 로이터=聯合)

영국 에이즈약 '에피버' 유럽 판매 승인

영국의 제약회사 글락소 웰컴사는 자사제품의 항에이즈제 '에피버'를 유럽연합(EU)의 전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글락소는 에피버를 다른 항에이즈제인 레트로버(AZI)와 함께 사용하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약을 투약한 다른 환자들에 비해 에



이즈로 발전될 가능성과 죽을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락소는 에피버가 빠른 시일안에 EU회원국에서 판매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락소사의 이같은 발표는 EU의 과학자문기관인 특허매약품위원회의 승인에 뒤이어 나온 것이다.

에피버는 이미 미국과 브라질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호주, 캐나다, 멕시

코, 뉴질랜드, 남아공화국, 스위스, 우루과이에서 3TC라는 상표로 팔리고 있다. (런던 AFP=聯合)

백신개발 부진 에이즈 정복 늦어진다

에이즈를 정복하는데 있어 치료약의 개발 이상으로 백신의 개발이 중요하다. 그러나 각국 정부와 제약회사들은 에이즈 연구의 이 중대한 부분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고 과학자들을 지적한다.

에이즈에 대한 연구가 10년이상 계속돼 왔지만 아직까지 대규모적으로 인체실험을 한 백신은 하나도 없다. 과학자들은 백신이 개발되려면 앞으로 최소한 5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의 추세대로 나간다면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미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한 에이즈 전문가는 에이즈 바이러스를 막는 길은 오로지 백신개발에 있다고 말하고 백신개발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매일 약 8천5백 명이 에이즈를 유발하는 HIV에 감염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교육 캠페인 같은 예방노력이 가치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에이즈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병에 면역성을 키워주는 백신이 에이즈 해결에 희망을 주는 최선의 길이라고 과학자들은 주장한다. (밴쿠버 로이터=聯合)

AIDS NEWS

미 FDA 에이즈 소변검사법 첫 승인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의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하고 안전한 소변검사법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FDA는 이 소변검사법에 의해 양성 반응이 나오면 제2차검사를 실시하며 2차검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이 보다 정확한 혈액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쓰이고 있는 에이즈진단법은 혈액이나 타액검사를 통해 HIV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항체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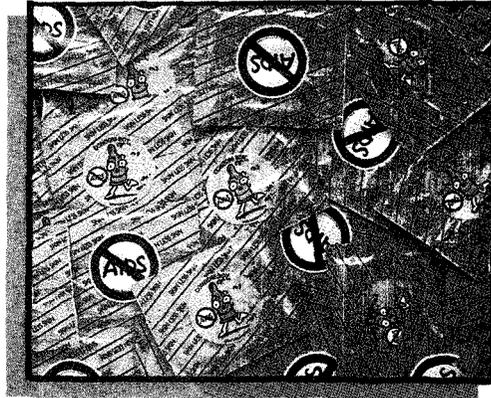
이 소변검사법을 개발한 칼립트생 의학회사는 이 검사법을 종합병원과 공중보건진료소, 개인병원 등 의료기관에 판매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플라스틱 컵에 소변을 채취하여 의사에게 주면 의사가 임상실험실에 검사를 의뢰하게 된다고 말했다.

FDA는 이 소변검사법이 HIV감염이 확인된 2백9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 99.3%의 정확도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워싱턴 로이터=연합)

뉴포젠 에이즈환자 면역강화 효과

미국의 생물공학회사인 엠젠사가 개발한 면역강화제 뉴포젠이 에이즈환자의 각종 감염위험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생존기간 연장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뉴포젠은 감염과 싸우는 백혈구인



호중구(好中球)의 숫자를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의 3분의 1이 겪게되는 호중구감소증을 치료하는데 널리 이용되고 있다. 호중구감소증에 걸리면 박테리아, 진균,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된다.

영국 런던에 있는 첼시-웨스트민스터병원의 에이즈전문의 마크 벨슨 박사는 뉴포젠을 에이즈환자에 투여한 결과 호중구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호중구의 기능이 강화됐다면 뉴포젠이 에이즈환자의 삶을 질-양적으로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런던 로이터=연합)

새 프로테아제 억제제 HIV 격감시켜

새로운 프로테아제(단백질 분해효소)억제제가 혈액내 HIV의 양을 단기적으로나마 크게 격감시킴으로써 에이즈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고 미국 뉴욕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했다.

연구진의 데이비드 호 교수는 인디나비르, 리토나비르, 사키나비르 등

새로운 형태의 프로테아제(단백질 분해효소) 억제제가 비교적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혈액내 HIV의 양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프로테아제 억제제 '인디나비르'와 뉴클레오시드 화합물인 AZT, 3TC 복합물을 다수의 HIV를 보유한 환자 6명에게 주사한 결과, 이 중 5명이 HIV 수준이 발견가능한 수준 이하로 감소했으며 그 상태가 44주일동안 계속됐다고 말했다.

또다른 프로테아제 억제제인 '리토나비르'와 AZT, 3TC의 복합물을 HIV 감염정도가 낮은 환자 12명에게 투여한 결과, 이들중 11명에게도 HIV 격감이란 동일한 효과가 나왔으며 그 상태가 최고 33주일동안 계속됐다. (밴쿠버 AFP=연합)

정신질환자들 HIV감염 위험성 높다 30명중 75%가 항체 양성

정신질환자들이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는 연구

AIDS NEWS

결과가 나왔다.

스페인 산 카를로스 대학병원의 정신과 의사들은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정신과 국제학회에서 정신병 환자들이 HIV에 감염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이들 사이의 HIV확산을 예방할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사들은 지난 93년 9월부터 94년 4월까지 이 병원에 입원했던 18세부터 59세까지의 정신병 환자 3백90명의 혈액샘플을 채취, HIV-1 항체 실험을 실시한 결과 75%가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5.1%가 HIV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정신질환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던 환자들이며 18세부터 39세까지의 환자들이 전체 입원환자의 63.4%였다.

이에 따라 이 의사들은 모든 환자에 대해 정기적 검사를 할 필요는 없으나 규명된 위험원인을 갖고 있는 정신병 환자들은 HIV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런던 로이터=聯合)

캄보디아 정부군 HIV 감염률 5~15% 계속 증가 추세 태국 국경지역 심각

에이즈는 현재 캄보디아 정부군에 전병태의 적인 크메르 루주보다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캄보디아군의 한 관계자는 국가에 이즈위원회의 통계를 인용, 정부군의 5~15%가 에이즈를 유발하는 HIV에 감염돼 있으며 감염의 위험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에이즈 교육을 훈련에 추가하

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기관들은 교육과 콘돔배포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에이즈의 확산은 특히 태국과 국경을 같이하고 있는 지방에서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접경지역은 매춘사업이 번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에서는 HIV 검사능력이 제한돼 있다. 군병원은 검사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군인의 8.6%가 HIV 양성반응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는 2개성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가 HIV 양성반응자로 나타났다.

WHO는 현재 캄보디아에 1천5백~2천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며 금세기말까지는 해마다 1만

2천명의 새 환자가 발생, 누계가 4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프놈펜 AP=聯合)

일부 에이즈감염자 홍역백신 피해야

미국 보건당국은 면역체계가 약화된 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가 홍역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뒤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가운데 홍역백신을 피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관리들이 말했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세의 한 청년이 홍역백신을 맞고 거의 1년뒤 병에 걸려 지난 93년에 사망했는데 정밀한 실험실검사를 통해 폐렴으로 인한 그의 사망이 홍역백신에 의한 것이었다고 결론이 난것은 지난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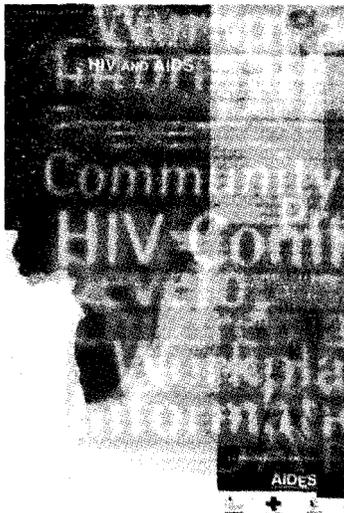
CDC는 에이즈를 유발하는 HIV에 감염된 환자로서 면역체계가 크게 약화된 사람에게 홍역백신이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게하는 경우가 처음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CDC의 한 관계자는 면역체계가 크게 약화되지 않은 HIV 감염자는 홍역백신을 맞아도 괜찮다고 그들은 면역체계가 보다 좋기 때문에 투명생활에서 면역 체계가 약화되기전에 일찌기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애틀랜타 로이터=聯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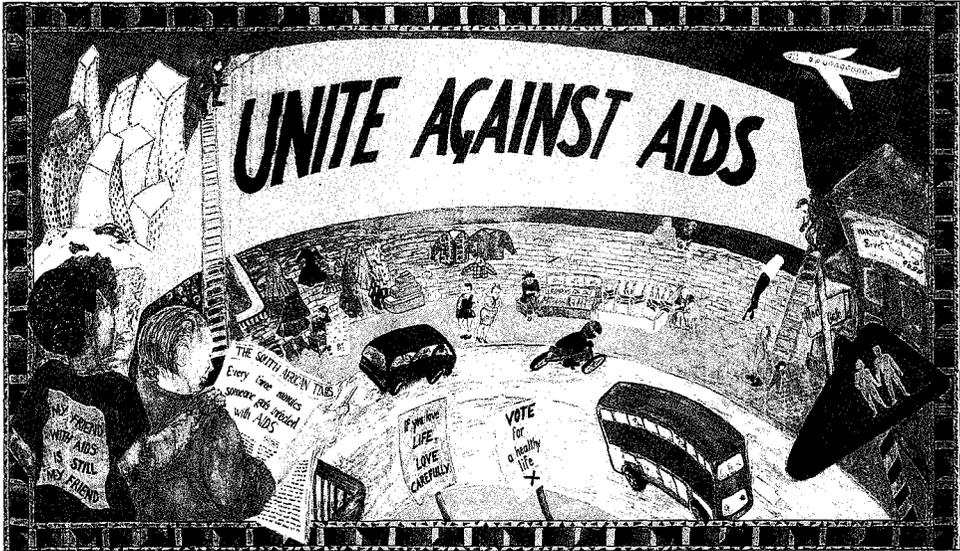
에이즈에 면역성 변이유전자 발견 백인만 보유 100명중 한명꼴

에이즈에 대해 강력한 면역성을 갖는 변이유전자가 발견돼 미국의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

펜실베이니아대학 메디컬 센터의



AIDS NEWS



로버트 돔스 박사와 아론 다이아몬드 에이즈연구소의 나사니얼 랜도 박사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각각 하나씩 한쌍의 이 변이유전자를 받은 사람은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미국 백인들은 1백명중 한명꼴로 이 변이유전자 한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고 밝혔다.

돔스 박사와 랜도 박사는 의학전문지 네이처 최신호와 셀 최신호에 각각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이 유전자는 정상적으로 질병에 대한 신체의 방위를 지시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유전자가 변이를 일으키면 HIV가 세포속으로 침입하는데 필요한 결합장소중 하나인 CKR-5수용체라고 불리는 단백질이 생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돔스 박사와 랜도 박사는 이러한

변이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따라서 HIV에 감염돼도 강력한 저항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면역력이 절대적인 것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보스턴 AP로이터=聯合)

미국서 신종 에이즈 바이러스 발견

매우 희귀해서 현재의 검사법으로는 잡아내기가 어려운 신종 에이즈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돼 미국의료계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국립질병통제센터(CDC)는 94년 2아프리카에서 이민와 현재 로스앤젤레스에 살고있는 20대초반의 여인이 매우 드문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1 O형>에 감염돼있음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CDC 에이즈 추적팀의 패트릭 설리번 박사는 이 신종 에이즈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1 M형과는 유전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이용되고 있는 항체 검사법이나 DNA 테스트로는 포착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설리번 박사는 이 여인의 경우 에이즈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세포인 CD4가 감소하는 등 전형적인 에이즈증세가 나타났음에도 항체테스트와 DNA테스트에서 모두 음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히고 혈액샘플을 이용하는 보다 정교한 검사법으로 바이러스를 배양시킨 다음 유전자 배열순서를 확인한 결과 마침내 희귀종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1 O형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애틀랜타 (미조지아주)AP로이터=聯合) A